



[산업] 진격의 최태원 SK실트론 웨이퍼시장 진출 06



Life

[인터뷰] 이태하 아이티센 부회장 쌍용정보 인수 시너지 IT부문 연 1조매출 L4



박, 2주간 '잠시멈춤' 제안... "지금 제어실패 땀 심각"

(박원순 서울시장)

재택근무, 집단 행사·모임 제한 등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확산 늦춰 통제 불능 위기 피해야

신천지 거짓 정보로 행정력 낭비 거짓 답변 확인 시 엄중 처벌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제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 집단 행사나 모임 제한 등을 실시해 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초에 확산을 제어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2주간의 '잠시 멈춤'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시처럼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다. /서울시

해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에서 얻게 될 사회적 이익이 몇십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시 멈춤 수칙은 재택·유연근무 확대,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실제 모임 대신 전화·SNS·인터넷을 이용한 소통,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이다.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 만남과 이동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잠시 멈춤은 서로 가까이 만나는 시간과 일상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긴급복지지원체계 강화 ▲서울형 긴급복지와 입원·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독거어르신 2만 9600명 건강 확인과 긴급 돌봄 실시 ▲급식비 추가 지원 및 서울시 재택근무 직원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의 거짓 정보 제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 지도부는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과 경기도에서 제공한 것을 비교하니 2700여명이 과천예배 참석을 숨겼다"며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 등은 신도들의 명단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고 집회나 일체 등을 금지하고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2만 8317명과 신천지 교육생 9689명을 조사한 결과 유증상자는 871명으로 집계됐다. 유증상자 가운데 총 388명이 진단 검사에 응해 2명은 양성, 30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8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833명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서 55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274명의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부한 나머지 2명은 설득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2748명은 서울시 조사에서 지난달 16일 과천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는 한편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거나 과천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불성실한 답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최대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 설치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서울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차에 탄 채로 접수부터 채취까지 처리 검사 시간 1시간에서 10분 내외로 단축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4곳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는 ▲서울 은평병원(은평) ▲소방학교(서초구)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송파구) ▲이대서울병원(강서구)에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료소마다 의사 4명 등 총 12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서는 방문자가 차에 탄 채로 접수부터 진료, 검체 채취까지 처리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문자로 통지된다. 1인당 검체채취 시간은 최대 1시간에서 10분 내외로 줄어든다.

시는 진료과정에서 폐 엑스레이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인근 시립병원과 보건소로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검체채취가 가능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기존 3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서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44곳에서 73곳으로 늘어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3~29일 서울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하루 평균 87.8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평균 검체 채취 건수는 50건이었다.

시는 하루 평균 진료건수 100건이 넘는 자치구가 7개구, 검체채취 50건이 넘는 자치구가 10개구에 달해 시민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 방문시 의사의 상담과 진료에 따라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체채취에 '임상병리사'를 투입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하루 진료 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주택·도시계획 17만건 온라인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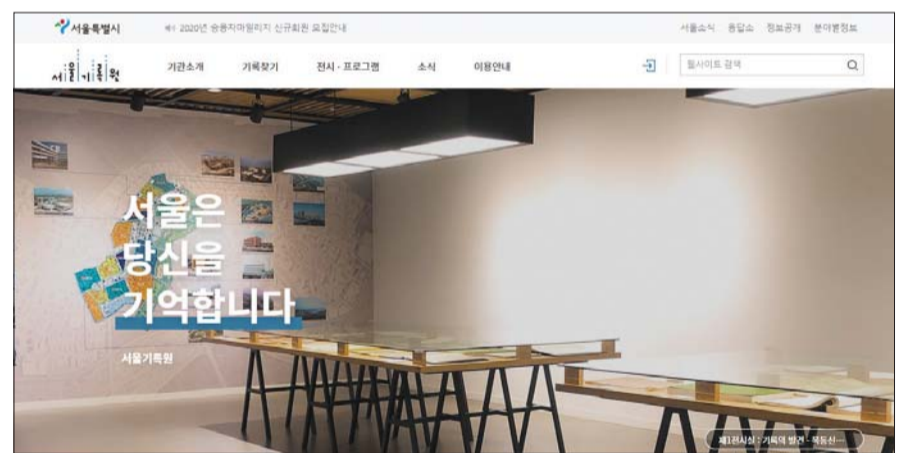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SDA 통해 공공기록 공개 공간·교통 등 113개 시리즈로 구성

서울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SDA)'를 통해 서울시가 생산·보유한 중요 공공기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기록원은 SDA 오픈과 함께 '주택·도시계획' 기록 약 17만건을 정리해 시민에게 우선 공개하고 3월 내 청도문서고 이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스캔 기록 총 115만여건을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

약 17만여건의 주택·도시계획 관련 기록은 공간시설,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지구별 토지구획정리 등 113개의 시리즈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도문서고로부터 이관받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돼 있는 기록 총 115만여건도 3월내로 탑재 완료하고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 결의서



서울기록원 메인화면. /서울기록원

등 가장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을 중심으로 공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록원은 생산부서(3650개), 주요 인물(121명), 주제(228개), 공간·장소(590곳), 업무기능(70개)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주택·도시계획' 관련 기록과

도 연결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추진에 따른 기능개발 및 기준에 개발한 기록관리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 보급

10억원 투입해 설치비 최대 80% 지원 태양전지, 건물 외장재로... 설치 용이

서울시는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건물이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외벽, 창호, 지붕 등 기존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공간에도 설치가 가

능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건물 소유자 혹은 소유 예정자는 이달 20일까지 태양광 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및 태양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디자인형 BIPV.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에너지"라며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